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15

정체를 밝힌

요셉

(창세기 42장)

기근은 여전히 계속되었어요.
땅이 짹짹 갈라지고 시냇물과 우물도
바짝 말라버렸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얼마 못가 동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참다못한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희를 지금 이집트로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 몽땅 굶어 죽습니다!
이 유다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목숨을 걸고
다 책임지겠단 말입니다!”

이제 야곱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마침내, 유다의 약속을 듣고는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총리님~ 가나안에서 온 르우벤과
그 형제들이 또다시 총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말씀하신
막넛동생을 데려왔다 하옵니다.”**

형들과 함께 베냐민이 들어오고 베냐민을 본
요셉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베냐민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마음을 굳게 다잡고 물어봤죠.

“그래, 이 자가 당신들이 말한
막냇동생이요?”

“그렇습니다, 총리님.
이제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걸
믿어주시겠습니까?”

요셉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감옥에 갇혀 있던 시므온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약속한 곡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먼 길을 왔을테니 내 특별히
저녁식사도 대접하겠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요셉과 형제들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형제들의 눈이 휘둥그래질 만큼
푸짐한 상이 차려져 있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형제들을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아니, 형님! 저희가 앉으라는대로
의자에 앉긴 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준비한걸까요?”**

**“그, 그렇게 말이다.
정확히 우리 열한 명의 나이순서대로구나.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도 신기하구나.”**

**그렇게 아리송한 저녁만찬이 끝나고
형제들은 이집트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잠들고 나서
요셉이 부하 한 명을 몰래 불렀어요.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저 가나안인들의
가방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거라.
그들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주되
막내 베냐민의 가방 속에는
내가 아끼는 은잔을 몰래 넣어두거라.
알겠느냐?”

요셉은 한 번 더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형들이 베냐민을 정말 아껴주고 있는지
예전에 자기를 버렸던 잘못 뉘우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고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의 총리에게
감사인사를 전한 뒤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렇게 형제들이 가나안을 향해
떠난지 얼마나 갔을까?

**갑자기 뒤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형제들을 뒤쫓아왔어요!**

**“멈추어라! 멈추어라! 총리님의 귀한
은잔이 없어졌다.
누가 그것을 훔쳐간것이야!**

**형제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요셉의 부하는 막무가내였어요.**

**“너희가 도둑질을 한 게 틀림없다.
여보라, 이 자들의 가방을 샅샅이 뒤져보거라!”**

그렇게 갑작스러운 가방 수색이 시작되었어요.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그리고 마침내
막내 베냐민의 차례가 되었을 때

“나왔습니다!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랐어요!
베냐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건 물론이고
형들도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형제들이 변명할 새도 없이
요셉의 부하들은 형제들을 다시
이집트로 끌고 갔어요.

“내가 그대들에게 곡식도 주고 식사도
대접했건만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어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요셉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형제들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넷째 형 유다가 말했죠.

**“총리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를 벌하시는게 당연합니다.
저희가 모두 총리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자 요셉은, 이때다 싶어 말했어요.
형들의 마음을 확인해 볼 좋은 기회였죠!

**“됐다, 됐어. 모두 남을 필요 없다.
내 잔을 훔쳐간 저 베냐민만 남겨두거라.
나머지는 그냥 돌아가도 좋다.”**

유다는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다 책임지겠다고 한
아버지와 약속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요셉의 발 앞에 무릎꿇고 애원했죠.

“총리님, 저 아이는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베냐민을 이곳에 두고 가면 아버지는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 될테니, 베냐민만큼은 부디 풀어주시옵소서.”

그제야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달라진 형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죠.

마침내 요셉은, 형들 앞에 정체를 드러내기로 했어요!

**“형님들, 일어나십시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의 동생, 요셉이라구요!”**

**여러분, 형제들의 기분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나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요셉이 형들을 다독여주었죠.**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요셉이
바로 저라구요! 이제 아시겠어요?”**

**형님들, 그리고 베냐민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지독한 기근이 앞으로 5년은 지나야
끝나겠지만, 제가 형들과 아버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모든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저를 이집트에 보낸건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구요!”**

그제야 형제들은 모든 것을 믿게 되었어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형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요셉과 가족들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이집트의 파라오왕은
야곱과 그 가족들을 위해
아주 기름진 땅을 내어주었죠.
마침내 요셉은 외로웠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아버지와 동생과 형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벌어진 이 모든 놀라운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